

『아서 왕의 죽음』에 나타나는 변장의 양면

김소연

1. 서론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는 아서 왕(King Arthur)과 귀네비어(Guinevere), 랜슬롯(Lancelot), 모건 르 페이(Morgan le Fay) 등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들을 언급하고 모티프를 차용하면서 아서 왕 로맨스라는 장르를 비틀어 보인다.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모험은 가웨인이 본래 속해 있던 공동체, 즉 아서 왕의 궁정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도착한 성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eng 501). 캐롤라인 딘쇼는 가웨인의 여정에서 그의 “통일된 정체성”(unified identity)이 흔들리고 분열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기사 세계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코드에 맞추어진 연극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212-13). 성주의 부인을 비롯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웨인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서 왕 궁정을 떠날 때 그가 지니고 있던 무구의 표식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기대함으로써 그에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낯선 성에 들어섬과 동시에 그의 갑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 것은 기사의 정체성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에서 강조되는 연극성은 토마스 말로리(Thomas Malory)의 『아서 왕의 죽음』(*Le Morte Darthur*)에서 기사 세계의 관습처럼 자리잡은 변장의 모티프를 통해 부각된다. 싸움 장면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변장은 기사들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와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 유진 비나버(Eugene Vinaver)는 말로리가 이전의 로맨스 전통에서 무명으로 남겨져 있던 인물들에게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기존 인물의 이름을 가져다 붙임으로써 정체성을 고정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35-38). 실제로 『아서 왕의 죽음』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기사들이라 하더라도 랜슬롯 등 유명한 기사에게 패배하거나 죽임을 당한 후 이름이 밝혀지고, 변장을 하고 싸우던 기사들의 정체 또한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금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대부분의 변장 장면은 기사들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감추었다가 다시 드러냄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사로서의 자질을 입증하고 명성을 쌓으려는 목표에 들어맞지 않는 변

장 장면들도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변장은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을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거나 숨겨져 있던 면을 드러낸다.

많은 경우 변장으로 자신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켰던 기사가 다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기사들의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기사의 등장으로 인해 위협받던 평화는 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편입하는 과정에서 복원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랜슬롯처럼 뛰어난 기사의 자질, 즉 힘과 용맹, 노련한 전투 기술을 지닌 인물의 일시적 이탈과 재편입은 특히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를 공공연하게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아서 왕 궁정은 외부의 공격에 맞설 힘을 지닌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의도적인 변장 외에 모험의 와중에 우연히 만난 기사들이 자신의 동료를 알아보지 못하고 싸우는 상황 또한 기사들의 유대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때로 변장은 기사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표출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갈등을 생산하기까지 한다. 궁극적으로 『아서 왕의 죽음』에서 변주되는 변장의 모티프는 상대방의 정체도, 싸움의 명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조차 싸움이 자행되는 사회의 속성을 드러내며, 아서 왕의 기사 집단이 분열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후반부에서는 기사 세계를 지탱하던 주요규칙으로 인해 그 세계가 무너지는 역설을 말해준다.

그간 많은 비평가들이 아서 왕 로맨스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왔는데, 대표적 예로 성(gender)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 내에서 성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남성과 여성 간 권력 관계가 뒤집히는 양상에 주목하는 제인 번즈(Jane Burns)와 페기 맥크라켄(Peggy McCracken)을 들 수 있다. 또한 케네스 핫지스(Kenneth Hodges)는 각 인물의 몸에 깃들여 있는 기사의 정체성이 흠 없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처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분열되고 파편화된다는 주장을 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평가들의 관점을 이어받아 『아서 왕의 죽음』에서 변장과 표식, 숨김과 드러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을 짚으면서 개인의 정체성 성립과 공동체에 잠재된 갈등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사의 사회적 지위 및 기사 간의 유대가 변장으로써 강화되는 장면과 배신의 성격을 띤 변장 장면들을 비교대조하고, 아서 왕 공동체의 주요 갈등요소인 ‘금지된 사랑’이 변장의 모티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것이다. 덧붙여 공동체의 붕괴를 그리는 후반부로 가면서 변장의 성격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기사 세계에 상존하는 배신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도 이 글에서 할 일이다.

2. 변장과 사회적 정체성

『아서 왕의 죽음』에서 유명한 기사가 정체를 감추고 싸움에 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를 무명 시절로 돌려보내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랜슬롯처럼 용맹이 널리 알려져

다른 기사들이 맞서기를 피하는 기사의 경우 싸움 기회를 손에 넣고 기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장이 꼭 필요하다(Scala 385). 예를 들어 랜슬롯은 박데마구왕(King Bagdemagu)의 편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흰색 방패를 요구하면서 “내가 어떤 기사인지 아무도 모르도록”(thus shall I not be known what manner a knight I am) 하려 한다는 의도를 드러낸다(102). 아무 문장이 그려지지 않은 방패를 들고 싸움으로써 그는 이전까지 쌓은 명성을 감춘 채 자신의 용맹을 재입증하고, 승리를 거둔 후에는 본래의 정체를 밝힘에 따라 ‘최고의 기사’라는 칭호에 값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귀네비어가 기사에게 독사과를 먹였다는 혐의를 쓰는 사건에서 마도르(Mador)와 싸워 이기는 랜슬롯은 아서 왕에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휴식하라는 간청을 받고 투구를 벗는데, “그로써 모든 기사들이 그가 랜슬롯 경임을 알았다”(and then every knight knew him that it was Sir Lancelot; 413)라는 서술은 그의 승리가 투구 벗는 행위를 통해 확고해짐을 말해준다.¹⁾

아울러 변장한 기사는 미지의 인물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한 뒤 재편입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독사과 사건에서 아서 왕 궁정을 떠났던 랜슬롯이 귀네비어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는 대목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서술자는 “백마를 타고 증무장한 한 기사가 날쌔게 숲에서 나타났는데, 낮선 무구와 낮선 방패를 착용하고 있었다”(came from a wood there fast by a knight all armed upon a white horse, with a strange shield of strange arms)라고 묘사하여 랜슬롯을 외부에서 찾아온 이름 모를 기사처럼 보이게 한다. 랜슬롯 본인도 이 날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매우 긴 여정”(a right great journey; 411)을 감수했다고 강조하고 싸움을 완수하면 곧바로 새로운 싸움터로 떠나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모험거리를 찾아 다니는 무명의 기사처럼 자신을 연출한다(412). 아서 왕 역시 귀네비어를 구해낸 것 이외에 그가 자신의 궁정에 당도하기 위해 긴 “여정”(journey; 413)을 겪었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이렇듯 랜슬롯이 외부에서 찾아온 영웅의 역할을 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장면에서는 연극성이 느껴지며, 변장을 직접 행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아서 왕 궁정의 구성원 모두가 구경꾼으로서 이런 연극을 목인하고 동참한다고 할 수 있다.

랜슬롯이 케이(Kay)가 잠든 사이 그의 갑옷과 방패를 착용하고 길을 떠나는 대목에

1) 처음부터 최고의 기사로서의 위치를 점한 채 등장하는 랜슬롯과 달리 트리스트람(Tristram)은 무명의 위치에서 기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지만 마르할트(Marhalt)를 이기고 명예를 얻은 뒤 랜슬롯과 마찬가지로 변장을 통해 명예를 높여간다. 그는 이조데(Isode)를 사랑하는 팔로미스데스(Palomidess)와 연적 관계를 이루게 되었을 때 트람트리스트(Tramtrist)라는 가명을 쓰고 있음에도 굳이 정체를 감추고 토너먼트에 참가하는데, 아직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지지 않은 사회에서 변장으로 명성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서도 변장은 기사의 사회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명성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목에서 랜슬롯이 케이로 오인 받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가 지닌 힘과 용맹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비밀처럼 스스로를 금새 드러낸다. 우연히 그를 만난 동료 사그라모어(Sagamore)는 “내가 케이 경의 힘을 증명해보겠다”(I will prove Sir Kay's might; 112)고 말하면서 그를 공격하지만 실상 여기서 “증명”되는 것은 케이 가 아닌 랜슬롯의 힘이다. 더구나 가웨인이 말을 모는 랜슬롯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그의 정체를 맞힌다는 점은 변장이 기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고하게 만들기를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바로 앞 장면에서 랜슬롯이 자신이 패배시킨 기사들에게 “그대들이 항복한다면, 케이 경에게 항복하는 것이오”(for and ye be yielded, it shall be unto Sir Kay; 111)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가 거둔 명예가 실제로 케이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렇듯 정체를 감춘 채 명예를 획득하여 사회적 자아를 확인하는 것은 랜슬롯이 광기에 빠졌다가 정신을 되찾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지닌 기사로서의 정체성은 광기에 빠져 있는 동안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되는데, 광기에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상태에서도 그는 나무 근처에 걸려 있는 칼을 보자마자 손에 넣은 뒤 무차별적으로 주변의 기사들과 싸우고, 자신을 보살피준 블라이언트(Bliant)가 위협에 처한 것을 보자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를 위해 싸운다. 그가 이렇듯 싸움을 통해 원래 지니고 있는 자질을 증명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정신이 치유되기 이전에도 정체를 짐작할 수 있다. 기사가 잠시 남의 갑옷과 투구를 걸친다고 해서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으며 그것들을 벗어놓음과 동시에 본래의 위치를 되찾는 것처럼, 광기에 빠졌던 랜슬롯은 정신을 찾은 뒤 아서 왕 궁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토너먼트에서 엄청난 용맹을 발휘, 오백 명의 기사를 패배시켜 자신이 ‘최고의 기사’임을 입증한다.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전에 그가 이름을 숨기고 “일탈했던 기사”(Le Chevalier Malfait)로 자칭하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기사에게 “당신은 친절하지 않군요”(ye are not gentle)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은 이 같은 입증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299).

『아서 왕의 죽음』에서는 개개의 기사가 지닌 정체성뿐만 아니라 기사들 간의 적대관계와 우호관계 역시 고정적으로 그려진다. 기사들은 싸움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장하지 않더라도 종종 길을 가다가 실수로 자신의 동료를 공격하거나 적을 구해주게 된다. 상대방을 미지의 기사로 인식하던 때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면 본래의 관계, 즉 우호관계 또는 적대관계는 바로 복원된다. 예컨대 트리스트람이 팔로미데스를 구해준 뒤 그가 적임을 깨닫고 결투를 신청하는 장면과 이에 뒤이어서 그가 방패를 가린 채 지나가던 랜슬롯을 팔로미데스로 착각하고 싸우는 장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한다. 트리스트람이 팔로미데스와 주고받던 친근한

대화는 서로의 정체체를 확인하는 순간 중단되고, 발 밑의 풀을 적실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며 싸우던 트리스트람과 랜슬롯의 갈등은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해결된다.

그러자 랜슬롯 경은 무릎 꿇고 자기 검을 바쳤고, 이에 트리스트람 경도 무릎을 꿇고 검을 바쳐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리고나서 둘다 돌에 가서 앉은 뒤 투구를 벗어 식히고, 서로에게 수없이 입맞춤을 했다. 그런 뒤 이들은 곧 깨물기로 말을 달렸고 그곳에서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을 만났는데, 이들은 트리스트람 경과 함께가 아니고서는 궁정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아서 왕에게 약속을 한 터였다.

“돌아오시오,” 랜슬롯이 말했다. “내가 트리스트람 경을 만났으니 그대들의 원정은 끝났소. 아, 여기 바로 그가 있소!”

And therewith Sir Lancelot kneeled down and yielded him up his sword. And therewith Sir Tristram kneeled down and yielded him up his sword; and so either gave other the degree. And then they both forthwith went to the stone and set them down upon it, and took off their helmets to cool them, and either kissed other a hundred times. And then anon after they took their horses and rode to Camelot; and there they met with Sir Gawain and with Sir Gaheris, that had made promise to Arthur never to come again to the court till they had brought Sir Tristram with them.

‘Return again,’ said Lancelot, ‘for your quest is done, for *I have met with Sir Tristram: lo, here is his own person!*’ (231)

위 인용부분에서 랜슬롯이 다른 기사들을 불러모으고 트리스트람을 소개하는 데서 드러나듯, 트리스트람은 랜슬롯과 겨루는 경험을 통해 아서 왕 궁정과 반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임을 증명하여 궁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아, 여기 바로 그가 있소!”라는 선언은 트리스트람이 랜슬롯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맞설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는 기사로서의 자질까지 증명했음을 암시한다(Hodges 18).

랜슬롯과 트리스트람의 화해 장면에서처럼 우호관계에 있는 기사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 아무리 치열하게 싸웠다 하더라도 정체를 깨닫자마자 애통해 하고 우정을 맹세한다. 이에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하는 것은 서로의 정체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적대관계가 회복되는 대목들이다. 가령 우연히 만난 낯선 기사들을 구해주는 디나단(Dinadan)은 자기 이름을 밝히자마자 그들의 적으로 간주된다(243). 서술자는 “디나단 경은 용감하고 좋은 기사들 모두를 사랑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고, 좋은 기사들을 파멸시키는 자는 누구나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인자로 불리는 자들 말고는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For Sir Dinadan had such a *custom* that he loved all good knights that were valiant, and he hated all those that were destroyers of good

knights. And there was none that hated Sir Dinadan but those that ever were called murderers; 243; 필자 강조)고 설명한다. 이 대목에서 ‘습관’ 또는 ‘관습’이 아서 왕 로맨스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나단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 기사들은 그의 적임이 밝혀지자 “파멸시키는 자”와 “살인자”로 불리게 되고 이들 간의 싸움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관습’이 된다. 따라서 기사 개인의 정체성뿐 아니라 기사 간의 관계 또한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관계 속에서 싸움이 끝없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3. 변장이 감추고 드러내는 것들

앞서 언급했듯 녹색 기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흔들리는 가웨인의 정체성은 그의 모험이 끝난다고 해서 떠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아서 왕 궁정으로 돌아온 가웨인은 그를 환대하고 영웅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처럼 그려진다. 『아서 왕의 죽음』의 기사들도 때로는 변장을 통해 가웨인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한다. 대표적 예로 랜슬롯이 아스콜랏(Ascolat)의 토너먼트에서 아서 왕 궁정의 기사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변장하는 대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기사의 방패 및 갑옷과 정체성 사이에 맺어진 관계 자체의 모호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방패와 갑옷은 남을 속이는 변장도구임과 동시에 각 기사를 구별하는 표식이라는 이중성을 띤다. 엘리자베스 스칼라(Elizabeth Scala)가 주장하듯, 랜슬롯이 아스콜랏에서 들고 싸우는 흰색 방패는 무명 기사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가 아스콜랏에서 만나는 일레인 라 블랑슈(Elaine la Blanche)의 이름 또한 암시할 수 있다(398). 즉 랜슬롯의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방패가 일레인이라는 특정 여성을 가리키는 표식으로 쓰이는 것이다.

기사들이 싸움터에서 착용하는 여성의 물건은 기사 개인을 식별케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소유한 여성의 존재 및 그 기사와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Burns 4). 일레인의 빨간 소맷자락을 받은 랜슬롯이 “이전에는 어떤 처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해본 적이 없소”(Never did I erst so much for no damosel; 417)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도 이와 같은 의미 체계에 대해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변장이 끝남과 동시에 후자의 의미는 지워지고 전자만이 전면에 내세워진다. 서술자는 랜슬롯이 그전까지 특정 여성의 물건을 달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일레인의 소맷자락을 달고 나감으로써 더 확실히 정체를 숨길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하고(416), 이 사실을 안 귀네비어가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때 보스(Bors)가 그를 옹호하며 내세우는 근거도 변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426). 랜슬롯이 아스콜랏을 떠난 후 일레인이 주검의 형태로 아서 왕 궁정에 찾아와 “나는 아스콜랏의 예쁜 아

가씨로 불리던 당신의 연인이었습니다”(And I was your lover, that men called the Fair Maiden of Ascolat)라고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소맷자락이 나타낸 의미 중 두 번째 의미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랜슬롯은 자신이 “그녀 죽음의 원인 제공자”(the causer of her death)가 아니며 자신에 대한 귀네비어의 분노도 “원인 없는”(causeless) 것이라고 항변하여 두 번째 의미를 사장한다(436).

『아서 왕의 죽음』에서 랜슬롯에게 구애하는 여성 인물들은 텍스트로부터 “부재하는 여왕”(absent queen)인 귀네비어의 “대체물들”(substitutions)처럼 기능하는데(Batt 86-87), 아스콜랏에서 랜슬롯이 일레인과 맺는 관계 또한 랜슬롯과 귀네비어의 관계가 지닌 속성을 비추어준다.²⁾ ‘랜슬롯의 연인’이라는 일레인의 정체성이 아서 왕 궁정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귀네비어와 랜슬롯의 사랑도 텍스트 내에서 “발언되지 않고 발언될 수도 없는”(unarticulated and unarticulable; Batt 84-87) 성격을 띤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서 왕 궁정에 갈등을 일으키게 될 요소로 상존하나 독자들은 “텍스트 외부의 지식”(extratextual knowledge)을 토대로 서술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Batt 84-87). 일레인처럼 귀네비어도 ‘랜슬롯의 연인’이라는 정체성을 사회적 코드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녀와 랜슬롯이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의미 체계도 싸움터에서는 쉽게 무효화된다. 아스콜랏의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이전까지 랜슬롯이 싸움터에서 어떤 특정 여성의 표식도 달지 않는 것은 그의 연인인 귀네비어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일레인의 소맷자락을 달고 싸웠음을 알자 귀네비어가 화를 내는 것은 그러한 둘만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기사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싸우기 위해 소맷자락을 달았다는 설명과 함께 이러한 의미 체계는 무효화되고, 랜슬롯을 향한 그녀의 분노는 ‘원인 없는’ 것이 된다. 이는 기사가 싸움터에서 쌓아나가는 사회적 정체성과 달리 침실에서 확인되는 연인의 정체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임을 말해준다.

기사들의 경우 변장을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본래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고유의 문장이 새겨진 방패나 갑옷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몸에 새겨진 상처나 말 타는 자세를 통해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다. 반면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변장과 바뀌어가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전자를 복원시키는 과정을 수반하지도 않

2) 갈러헤드(Galahad)를 잉태하는 또 다른 일레인도 랜슬롯과 귀네비어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드러낸다. 스칼라가 주장하듯 브루센(Dame Brusen)이 사용하는 마법뿐 아니라 귀네비어에 대한 랜슬롯의 열정도 그로 하여금 일레인을 귀네비어로 착각하게끔 만든다. 랜슬롯이 귀네비어의 반지를 받고 기뻐하며 달려가 일레인과 육체관계를 갖는 것은 귀네비어와 그가 연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욕망에 사로잡혀 옷을 벗는 대목에서 그는 독자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귀네비어의 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 또한 노출하게 된다(393).

는다. 예를 들어 귀네비어의 몸은 마법으로 인해 다른 여성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펠레스 왕(King Pelles)의 딸은 마법의 힘을 빌려 말 그대로 귀네비어의 육체를 ‘입고’ 대신 랜슬롯과 육체 관계를 맺는다. 『산문 랜슬롯』(*Prose Lancelot*)에서 아서 왕의 진짜 아내로 자칭하던 여성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 말 그대로 ‘몸’을 잃어버림으로써 패배하는데 반해, 『아서 왕의 죽음』의 귀네비어는 다른 여성에 의해 바뀌어지기 당했음에도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랜슬롯이 두 번째로 펠레스 왕의 딸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장면에서는 그녀가 어둠에 힘입어 귀네비어의 위치를 빼앗았음이 뚜렷해진다.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육체 관계를 가진 뒤 랜슬롯이 “잠을 자면서 귀네비어 왕비와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랑에 대해 어치처럼 지껄여댔다. 그가 워낙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에 왕비도 자기 침실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And in his sleep he talked and clattered as a jay of the love that had been betwixt Queen Guinevere and him; and so he talked so loud that the Queen heard him there as she lay in her chamber; 288)고 말한다. 귀네비어가 랜슬롯의 잠버릇을 알고 있는 것이나 랜슬롯이 귀네비어의 헛기침 소리를 듣고 그녀임을 인식하는 것은 연인으로서 둘 사이에 형성된 친밀도를 나타낸다(Kaufman 82). 그럼에도 그녀가 헛기침 소리, 또는 “언어화되지 않는 소음”(wordless noise)으로 밖에 항변하지 못하는 것은 랜슬롯의 연인으로서 자신이 지닌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헛기침소리는 공적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의 침묵 당한 욕망”(silenced female desire)을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Kaufman; 82-83).

이 작품에서는 숨겨진 사랑이나 질투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동료로 대우하는 기사들의 은밀한 원한관계도 사회적 코드로 표현되지 못한 채 잠재되어 있다가 후반부에서 표면화된다. 아스콜랏에서 랜슬롯이 변장을 하고 아서 왕 궁정의 기사들과 맞서는 장면을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다. 그가 “적들”(enemies; 415)이 자신과 귀네비어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귀네비어와 함께 궁정에 머무르는 대신 다른 기사들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아스콜랏에서의 토너먼트 참가는 그 자체로 변장의 성격을 띤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서 변장한 상태의 싸움은 동료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랜슬롯 본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격렬하게 그려진다. 즉 그가 자인하는 것처럼 동족과 친구들 간의 싸움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mortal war; 428)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랜슬롯과 트리스트람의 결투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는 마찬가지이나, 앞선 장면과 달리 아스콜랏에서 랜슬롯은 자신이 동료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그들을 죽일 뻔 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에 내버려 두었다”(he might have slain them,

but when he saw their visages his heart might not serve him thereto, but left them there; 419)는 서술은 랜슬롯이 동료 기사들을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케이의 갑옷을 입고 사그라모어를 말에서 떨어뜨릴 때 그가 가벼운 장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장면에서 그는 토너먼트를 빌미 삼아 다른 기사들을 공격하고, 그로써 아서 왕 공동체 전체의 연대를 무너뜨릴 위험까지 무릅쓴다고 하겠다.

비슷한 예로 팔로미데스의 변장도 동료기사를 향해 그가 품고 있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원한에서 비롯된다. 트리스트람이 갑옷과 마구를 빨간색으로 통일하여 변장하고 토너먼트에 참가하자 이조테를 몰래 사랑하는 팔로미데스는 다른 기사의 갑옷과 방패를 착용하고 그를 공격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변장은 기사로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한 트리스트람의 변장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들의 싸움에 랜슬롯이 끼어듦에 따라 변장한 자와 변장하지 않은 자가 뒤엉켜 싸우게 되는데, 랜슬롯은 트리스트람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공격한 뒤 그의 정체를 알자 죄책감을 느끼며 사과한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에서는 변장이 끝남과 함께 우호관계가 복원되는 전형적인 전개가 나타난다. 반면 팔로미데스는 트리스트람을 알아보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동료기사들 간의 규칙을 깨뜨리고, 그를 알아본 트리스트람의 비난을 듣고 나서야 알아보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더욱이 그가 싸움이 끝난 후에도 변장을 거두지 않은 채 그 모습대로 트리스트람 무리에 끼어 이동하려다가 저지 받는 모습은 적인지 동료인지의 문제가 명료화되지 않는 순간을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팔로미데스를 배신자로 의심하는 이조테는 트리스트람과 팔로미데스의 관계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포착한 것이라고 하겠다.

『아서 왕의 죽음』에서 변장은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격자에게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그 갈등이 노골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랜슬롯이 행하는 변장에서는 점차 갈등 표출의 성격이 강화된다. 귀네비어의 표식인 금빛 소맷자락을 투구에 달고 토너먼트에 참가한 그는 아서 왕의 기사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그를 알아본 가레스(Gareth)는 그의 편에서 싸우고자 한다. 이 때 보스는 가레스에게 먼저 변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정체를 감춘 채 아서 왕의 기사들을 공격하는 랜슬롯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편에서는 행위 또한 배신으로 읽힐 것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토너먼트에서 아서 왕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었음은 아서 왕이 변장한 채 몰래 랜슬롯을 도와준 가레스를 나무라는 데서 확실해진다(443).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트리스트람이 “말 잘 했소”(Ye say well 269)라고 대답하면서 추궁하지 않고 팔로미데스의 변명을 받아들이듯 아서 왕도 가레스의 변명을 듣고 나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 때 텍스트에 일어나는 균열은 갈등의 표출과 무마라는 두 가지 움직

임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먼저 가레스는 랜슬롯을 도와 다른 기사들과 싸운 이유로 두 가지를 섞어 이야기한다. “그가 워낙 잘 싸우는데다 워낙 많은 수의 고귀한 기사들이 그와 싸우는 것을 보았기에, 그가 호수의 랜슬롯임을 알았을 때 그토록 많은 뛰어난 기사들이 그와 싸우는 걸 보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For I saw him do so much deeds or arms, and so many noble knights against him, that when I understood that he was Sir Lancelot du Lake I shamed to see so many good knights against him alone; 443)라는 주장은 그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랜슬롯을 도운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한다. 이에 아서 왕은 가레스가 내놓은 이유 중 첫 번째만을 부각시켜 대응한다.

“진실로,” 아서 왕이 가레스 경에게 말했다. “말 잘했소, 그대는 명예롭게 행동했고 그대 자신도 명예롭게 했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아서 왕이 가레스 경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를 더욱 사랑하고 신뢰할 것이오. 언제까지라도,” 아서 왕이 말했다. “명예로운 기사는 다른 명예로운 기사가 위협에 처한 것을 보면 그를 도와야 하오. 명예로운 인간은 언제나 다른 명예로운 인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오. ... 그리고 좋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인간을 대할 것이오.”

“Now truly,” said King Arthur unto Sir Gareth, “ye say well, and worshipfully have ye done, and to yourself great worship. And all the days of my life,” said King Arthur unto Sir Gareth, “wit you well I shall love you and trust you the more better. For ever it is,” said King Arthur, “a worshipful knight’s deed to help and succor another worshipful knight when he seemth him in danger; for ever a worshipful man will be loath to see a worshipful man shamed. . . . And always a good man will do ever to another man as he would be done to himself.”(443)

위 인용부분에서 아서 왕은 “명예로운 기사”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다시 “좋은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일반론을 펼쳐 가레스를 칭찬한다. 이를 통해 가레스의 행동은 훌륭한 기사이자 “좋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해석되며 기사들 개개인의 갈등은 덮이게 된다. 또한 뒤이어 나오는 축제 장면에서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친구들에게 충실한 사람을 아끼는 시대였다”(And he that was courteous, true, and faithful to his friend was that time cherished)고 결론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서술자도 아서 왕처럼 갈등의 조짐을 가리고 있음이 드러난다(443).

작품 후반부에서 아서 왕 공동체의 몰락을 알리는 것은 랜슬롯이 아서 왕을 배신하고 귀네비어를 연인으로 삼았음을 고발하는 목소리이다. 고발자인 아그라베인(Agravain)과 모드레드(Mordred)의 지적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

를 목인해 왔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침실에서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궁정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with a loud voice, that all the court might hear it) 랜슬롯을 배신자로 지목한다는 점이다(471). 길에서 우연히 만난 기사에게서 공격을 받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그에 맞서 싸워야만 명예를 지킬 수 있듯, “수치스러운 소문”(shameful cry and noise; 472)은 랜슬롯에게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귀네비어와 함께 침실에 있던 그가 바깥의 외침을 듣고 처음으로 하는 행동도 갑옷을 찾는 일이다. 갑옷으로 몸을 가림으로써 그는 귀네비어의 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는 한편 한 사람의 기사로서 다른 기사와 정정당당히 맞설 자격을 ‘입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사 세계의 갈등은 무엇에서 기인하든 간에 갑옷을 입고 싸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방식으로 치환되며, 싸움의 방식이 몇몇하기만 하다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배신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가웨인에게 랜슬롯이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는 수밖에 없다”(I must needs defend me, or else to be recreant; 501)고 대답하는 것은 이 같은 기사 세계의 생리를 잘 반영한다.³⁾

서론에서 언급한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에서는 가웨인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는 인물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도, 그들이 아서 왕 공동체의 외부와 내부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분명치 않게 그려진다. 또한 모든 계략의 배후자로 지목되는 모건 르 페이가 텍스트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Friedman 264). 결말에서 버틸락(Bertilak)은 모건 르 페이가 속임수를 꾸민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녀는 원탁의 명성을 둘러싼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그 명성을 시험하여 보기 위해
 나에게 이렇게 변장을 하고 당신의 영예로운 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오.
 그녀는 귀네비어를 해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내게 이 마법을 걸어 당신을 속이게 했소.
 주빈석 앞에서 자기 머리를 손에 들고 섬뜩하게 말하는 신비한 자에게 놀라

3) 이와 흡사하게 팔로미데스가 이조데에 대한 사랑을 트리스트람에게 들키고 난 뒤에도 갈등의 원인은 부차적으로 밀려나고 두 기사의 결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일단 두 사람이 대립하게 된 이후부터는 자신보다 뛰어난 기사인 트리스트람과 싸우기를 피하는 팔로미데스와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트리스트람의 실랑이가 그려진다. 결투가 미루어지는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대립관계는 결국 트리스트람이 팔로미데스의 칼을 떨어뜨리고 팔로미데스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주목할 것은 팔로미데스가 자신이 이조데를 사랑함으로써 트리스트람처럼 뛰어난 기사에게 “모욕”(offence; 308)을 주었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의 칼을 받아내야 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말에서 이조데에 대한 팔로미데스의 감정보다는 힘과 용맹을 발휘하여 명예를 지키는 기사들의 관계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귀네비어가 공포에 질려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소.
 She made me go in this guise to your goodly court
 To put its pride to the proof, if the report were true
 That runs of the great renown of the Round Table.
 She put this magic upon me to deprive you of your wits,
 In hope Guinevere to hurt, that she in horror might die
 Aghast at that glamour that gruesomely spake
 With its head in its hand before the high table. (2456-2462)

이 대목에는 아서 왕 궁정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이유와 귀네비어를 놀래켜 죽이려 했다는 두 번째 이유 외에도 가웨인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세 번째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동기들은 서로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모건 르 페이가 기획한 모험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만일 어떤 기사도 녹색 기사와의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자청하지 못하게 만들으로써 자존심을 꺾으려 했다면 귀네비어를 놀래키게 될 일도 없을 것이고 가웨인의 모험도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귀네비어를 죽이고자 했다는 진술은 버틸락과 모건 르 페이에게 아서 왕의 적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이들이 아서 왕 궁정을 대표하여 나선 가웨인의 친척이라는 설명은 적과 동료의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아서 왕의 죽음』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의로운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채 싸우는 인물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싸움의 명분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그로써 무엇이 잘못된 모험(misadventure)이고 무엇이 정상적인 모험(adventure)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다. 귀네비어가 살인 혐의를 입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모든 방식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배신으로 불렸다”(all manner of shameful death was called treason; 406)고 설명하는데, 등장인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배신이 일어났다”(there was treason among us; 410)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반드시 배신자로 지목해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것처럼 갈등의 원인을 찾고 잘잘못을 가려낼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배신의 의미와 여부가 모호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밝혀내려는 시도도 무의미하다. 실제로 작품 후반부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며 여러 인물에게 붙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서 왕을 배신하는 귀네비어와 랜슬롯은 갤러헤드를 잉태하는 일레인에게 속아넘어간다. 귀네비어는 랜슬롯의 정절이 의심스럽지만 확인할 길이 없을 때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아서 왕 대신 귀네비어의 침대로 들어가는 랜슬롯은 귀네비어 대신 그와 육체 관계를 가진 일레인을 배신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배신 행위들은 싸움터에서처럼 공공연하기도, 고정된 정체성을 전제로 삼아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 같이 은밀한 배신에 은밀한 배신으로 맞

서는 양상은 아서 왕 로맨스 세계의 구성원들이 지닌 정체성을 갑옷이라는 표식만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사도 이데올로기에 담을 수 없는 요소들이 배신의 형태로 표출됨을 암시한다.

아서 왕의 공동체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싸움과 이에 수반되는 죽음을 제도화한 사회로서 필연적으로 붕괴하는지도 모른다. 후반부에서 자신에게 입은 상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가웨인의 주검 앞에서 어떤 인간이든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반론을 펴는 랜슬롯은 기사 세계와 폭력, 죽음의 상관관계가 자명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외면한다고 할 수 있다(Batt 174). 싸움 와중에 의도치 않았던 사람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 랜슬롯은 가레스와 가헤리스(Gaheris)를 실수로 죽였다는 이유로 가웨인과 대립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뻘뻘하게 몰려 있는 곳에서 랜슬롯 경이 싸우는 와중에 휩쓸려서 죽임 당했다”(they were slain in the hurling, as Sir Lancelot thrang in the thickest of the press; 481)는 서술은 그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음을 알려준다. 덧붙여 가레스와 가헤리스가 문장이 붙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 당했다는 설명은 갑옷을 벗는 것이 기사 세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암시한다. 심지어 갑옷을 벗은 기사의 몸조차 갑옷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대목들도 나타나는데, 랜슬롯은 뺨에 난 상처로, 보스는 이마에 난 상처로 식별 가능하다는 점은 오로지 싸움에 기반을 둔 정체성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말해준다. 즉 가레스와 가헤리스가 후반부에 맞이하는 우연한 죽음은 기사 공동체에 잠재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비추는 셈이다.

4. 결론

『아서 왕의 죽음』에서 관습으로 굳어진 변장은 개인에게 고정된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공동체 연대를 위협하는 갈등의 순간을 가려주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갈등 요소들은 변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배신 행위로서 드러나게 된다. 변장의 모티프는 기사도의 이데올로기에 미처 담기지 않는 영역을 가리는 갑옷처럼 사용되나, 랜슬롯의 흰색 방패와 빨간 소맷자락이 변장도구이자 표식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러한 ‘텍스트의 갑옷’은 텍스트에서 숨겨진 영역을 독자에게 드러내 보인다. 변장에 의해 숨겨지는 배신 및 변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배신은 기사 세계의 공식적 의미 체계로는 “발언되지 않고 발언될 수도 없는” 무언가가 갑옷 안에 들어 있음을 웅변한다.

참고문헌

- Batt, Catherine. *Malory's Morte Darthur: Remaking Arthurian Tradition*. New York: Palgrave, 2002.
- Burns, E. Jane. *Courtly Love Undressed: Reading Though Clothes in Medieval French Cul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Dinshaw, Carolyn. "A Kiss is Just a Kiss: Heterosexuality and Its Consolations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Diatrics* 24 (1994): 205-26.
- Friedman, Albert B. "Morgan le Fa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Speculum* 35.2 (1960): 260-74.
- Heng, Geraldine. "Enchanted Ground: The Feminine Subtext in Malory." *Courtly Literature: Culture and Context*. Ed. Keith Busby and Erik Kooper. Amsterdam: John Benjamins, 1990. 283-300.
- _____. "Feminine Knots and the Other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PMLA* 106.3 (1991): 500-14.
- Hodges, Kenneth. "Wounded Masculinity: Injury and Gender in Sir Thomas Malory's *Le Morte Darthur*." *Studies in Philology* 106.1 (2009): 14-31.
- Kaufman, Amy S. "Guinevere Burning." *Arthuriana* 20.1 (2010): 76-84.
- Malory, Thomas. *Le Morte Darthur*. Ed. Helen Cooper. Oxford: Oxford UP, 1998.
- Scala, Elizabeth. "Disarming Lancelot." *Studies in Philology* 99.4 (2002): 30-403.
-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Christopher Tolkien. London: Harper Collins, 1995.
- Vinaver, Eugene. *Malory*. Oxford: Oxford UP, 1970.

ABSTRACT

Two Sides of Disguise in *Le Morte Darthur*

Soyoun Kim

This essay examines the double effect of the motif of disguise in Thomas Malory's *Le Morte Darthur*. It makes a contrast between the scenes in which King Arthur's knights construct and express their social identities through disguise and those in which they express their identities that might threaten the social stability. On the one hand, disguise allows the knights to reinforce their social identities by concealing and revealing them in the battle. It strengthens the bond of the knights by repeatedly having the knights leave the community and then reenter it. Both the social identity of the knights and their relations tend to remain unchanged in the world of *Le Morte Darthur*. On the other hand, the motif of disguise illuminates the hidden sides of the society of chivalric ideology which are not recorded by the official system.

In this essay, I focus on the double function of armour and shield that complicates the way in which disguise works in Arthurian romance. The former part of this essay discusses how armour and shield are used to hide the knights' social identities temporarily. The latter part examines how they reveal the hidden elements of the society such as love and treason. Finally, this essay argues that the collapse of the Arthurian Court is forewarned and accelerated by the custom of fighting in disguise.

Key Words disguise, identity, fight, Arthurian romance, chivalric ideology, sign, love, treason.

